



지루한 장마와 폭염속에 회원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또한 안녕하십니까?

전력기술인들에게 그 동안 유용한 소식과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우리 협회지 『전력기술인』誌가 통권 300호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회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모태인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는 1963년도에 설립되었고, 지금의 『전력기술인』誌의 시초인 『전기주임기술자』誌를 1972년 4월, 제1호로 창간하였으며, 1975년 12월에 협회 명칭이 대한전기기사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회지명칭도 『전기기사』誌로 변경하여 발행하였습니다.

그 후 1996년 11월 29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대한전기기사협회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재탄생하면서 1997년 1월호부터 『전기기사』誌에서 『전력기술인』誌로 제호를 변경하여 올해 8월 통권 300호 발간이라는 대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간되었던 협회지들을 들여다보면, 협회의 모든 역사가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협회소식, 전기계 신기술 소개와 해외기술의 소개는 물론 각종 안전대책 사례, 개정법령 등을 소개하였고, 회원여러분들의 숨은 끼를 뽐낼 수 있는 문학마당에도 지면을 할애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국제전력 기술동향과 IEC, NEC 등 국제 전기표준화 동향 소개는 물론 철도전기분야, 전력시설물 유지관리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력신기술 소개와 사고사례를 실음으로써 전력산업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소식 전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과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행사 등을 집중 취재하여 협회 행사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행사에 참가했던 유명 인사들의 인사말과 축사를 게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중요한 홍보 매체의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는 협회지에 컬러부분을 추가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로 개편하여 시각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등 외적인 면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평균 발행부수가 '96년 19,000여권이었던 것이 작년의 46,000여권

에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60,000여권이라는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협회지에 지금까지 제공하였던 정보 외에도 회원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알차게 구성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어느 현장,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지가 지피지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회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고의 협회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기술인』誌 통권 300호에 즈음하여…….

1972년 4월 창간호에, 당시 윤일중 회장님의 발간사를 보면 “본 협회는 1963년 창설되었으며 그 목적은 전기주임기술자들이 단결하여 기술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 중 전기기술에 관한 도서 발간을 수차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고 불가불 그간 타 전기기술지에 합본 발간하고 있었던 바, 이번 4월부터는 단독으로 본 협회지를 발간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때의 윤 회장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훨씬 더 발전하는 협회지를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이 협회지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가족誌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협회와 회원님들의 대화채널로써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협회지를 통해 회원여러분들의 기술정보 습득, 사고사례 및 방지대책 등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나 회지 발간에 따른 광고 의존도가 높아 외형적으로 보면 양질의 정보지 역할이 미흡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8월의 무더위에 회원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1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희평

